

화학공장 지진대비 안전관리



사업장의 지진대책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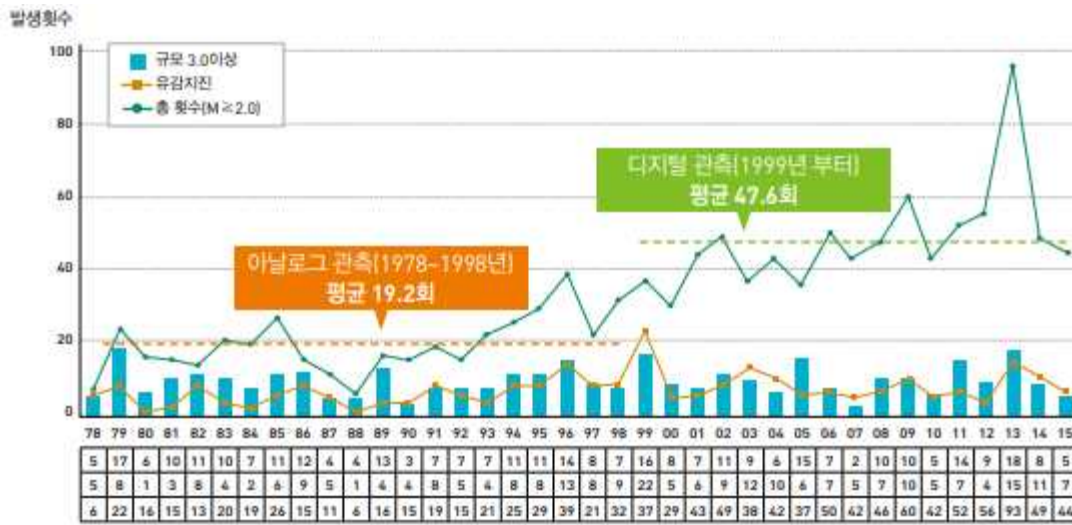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진의 90% 이상이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 주변에 위치해 있으나,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한 나라로 여겨져 왔음
-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9월에는 경북 경주지역에서 규모 5.8을 비롯한 강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



인테리어 천장이 떨어진 상황(동일본 대지진)



국내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(기상청)



위험물 저장 · 취급 설비의 점검 및 보강

- 지진으로 인하여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화재 · 폭발이 발생하면 사업장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, 위험물 취급 · 저장 설비는 평소부터 지진에 대비한 점검과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.
 - 위험물을 저장 ·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의 누출 시 확대 방지조치, 회수방법, 화재 등의 2차 재해 방지조치 및 기자재 준비와 조달 방법 등을 미리 준비
 - 위험물질을 다량 저장 · 취급하는 화학공장은 비상 시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· 시행
 - 비상시 사업장의 위험물을 인근 위험물 설비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업장 또는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

화학공장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

구분	행동요령
1	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면 모든 근로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
2	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약 1~2분이므로,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.
3	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활동 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.
4	독성가스 누출, 건물 붕괴, 화재·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공간으로 긴급 대피한다. 단, 지하층으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.
5	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·가스 등을 차단한다.
6	지진 발생 초기에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면 안 된다.
7	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, 탑승 중일 때에는 긴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.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.
8	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. 또한 블록담이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.

